

악인의 죽음을 슬퍼할 수 있는 사람
The Person Who Can Mourn the Wicked's Death
사무엘하 1장 1-12절

-
1.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2.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아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3.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4.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에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5.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6.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7.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8.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9.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10.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11.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12.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

1. 시편 139편 13절에서 14절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감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감탄을 잘하는지 생각해봅시다.
2. 서울대병원 윤대현 교수님은 ‘계절의 변화를 잘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는 기고문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지난 봄과 가을에 하늘을 바라본 기억이 없다면 영혼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건강한 사람일수록 감정처리가 수월’합니다. 나는 어떠한 편인가요?
3. 오늘 본문은 ‘사울이 죽은 후에(1절)’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13년 동안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 왕을 피해 도피생활을 한 다윗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요? 다윗은 어떤 감정의 반응을 보였나요? (11-12절)
4. 다윗이 원수의 죽음을 보고 보인 반응은 ‘후련함, 기쁨, 덤덤함’이 아니라 ‘슬픔’이었습니다. 다음 두 가지 성경구절을 찾아 읽어봅시다. (겔18:23, 행13:22)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란 오늘 본문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묵상해봅시다.
5. 다윗이 쓴 애가(슬픔의 시, 삼하1:17이하)를 읽어보면, 사울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드러납니다(특히 23-24절). 긍휼한 마음 안에서 다윗과 원수 사울이 하나가 됩니다. 사랑이 완성됩니다.

마5:7, 고후5:10, 약2:13을 읽어보고,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심판할 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며,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